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의 달 ·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
제32권 51호(나해) 2012-11-18

[묵사]



<늘 깨어 기다려야할 시간>

그 날은
하늘이 모든 빛을 잃고
땅은 환난으로 가득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우리를 뽑아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세상이 두려움에 떨 환난의 날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상받을
희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환희의 날입니다.

그 날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이기애
우리는 늘 깨어 기다려야할 시간입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이기 요셉 & 김순희 헬레나,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김행선 올리아나, 권진열 피데스 & 권병연 리디아, 남명자 테레사,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김종길 바오로, 이정용 아고보, 고준희 제임스, 박영준 안토니오, 황업술 안젤라, 송인식, 장석진, 배일호 헨리 이진실 테레사, 석아자 리나, 조순섭 카타리나, 송봉규 요셉&송공탕 카타리나, 전귀덕, 전임주 안나, 박준구 요한, 강래봉, 전시웅 요한, 죽은 레지오 단원들, 연옥영혼들
	(생)이연형 세칠리아, 유정자 세칠리아, 이윤조 클라라, 김행선 올리아나, 김은 안나, 정동호 하삼바오로, 차인수 안드레아, 빈첸시오단원들, 박해경 테나타 최길숙 요세피나, 김춘자 막달레나, 박희자 마리아, 최옥희 테레사, 안연숙 루피나, 고규재 체칠리아,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희원들, 김기정 루시아, 김옥보 안나, 최기남 아고보, 김찬구 요한, 권태만 실베스터, 김영길 안드레아, 지재환 프란치스코&김린다 안나,윤자열 마리아,박인수 프란치스코, 우영희 엘리사벳,이용석 페드로&이복임 엘리사벳,박진숙 엘리사벳, 홍석인 체칠리아, 오향숙 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다니엘 예언서(Daniel) 12,1-3

화답송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계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비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0,11-14.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복 음 마르코(Mark) 13,24-32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95	208
봉헌	401	257	259
성체	주 품에 품으소서	298	291
파견	야곱의 축복	225	19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더욱 온전한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과 구체적 제의들
가) 말씀 예식

다양한 형태의 대중 신심들은 전례 행위도 아니고 전례 거행과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전례에서 영감을 받고 특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데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무한한 영감의 원천, 넘어설 수 없는 기도의 본보기들, 풍요로운 묵상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 말씀과 침묵

66).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많은 교부들은 그들의 발표에서, 하느님 말씀과 신자들의 삶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상 말씀은 외적, 내적 침묵속에서만 발설되고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내적인 잠심을 길러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한순간도 대중매체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침묵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중심적인 위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또한 잠심과 내적 평온의 의미를 재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교부들의 전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는 침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의 여인이며 이와분리할 수 없이 침묵의 여인인 마리아에게서 그러했듯이 침묵 안에서만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의 전례들은 이러한 진정한 경청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커지실 때 말들은 줄어듭니다.(Verbo crescente, verba deficient).

이러한 가치는 특히 “묵상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하는 말씀 전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정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자들은 묵상을 위한 기회들을 장려하고 이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하느님 말씀의 장엄한 선포

67).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또 한 가지의 제안은, 특히 중요한 전례들에서 복음서를 시작 예식 때에 행렬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부제나 사제가 선포를 위하여 독서대로 가져감으로써 하느님 말씀, 특히 복음의 선포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복음 봉독은 말씀 전례의 절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속>

죽음, 또다른 내일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까? 늙어도 죽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가지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즐기려고만 했다면 죽음은 두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죽음은 크나큰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부리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인생을 물흐르듯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성실히 준비하면 내일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일 뒤에 내일, 그 내일 뒤에 내일, 그 뒤에 내일은 죽음입니다.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내일은, 오늘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날이 신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가니 매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면 목어(木魚)라는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목어가 깨어있음의 상징이랍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 않는다고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면 눈을 뜬 채 잠수도 있으니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심어진 선성(善性)으로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친절과 도움으로 애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성실히 준비하면 내일이 아름답듯이,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준비한 그 성실함이 아름다운 천국을 열어줄 것입니다. 혹, 내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천국을 앞당겨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실히 준

비하는 사람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열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일의 하나이며,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도, 떠나온 나도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준비하며 성실히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란 미래에 있을 멸망이 아닙니다. 종말이란 우리를 겁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이 사랑한다 말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젯빛 11월, 죽음을 묵상하는 달, 우리의 삶이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과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나를 찾아올 죽음이 친구처럼 편하고 반갑도록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며, 가장 확실한 우리의 내일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삶, 그 아름다운 무늬들

사람을 만날때 허물이 먼저 눈에 띄었던 시절이 있었지.
어느 삶을 바라볼 때에도 상처가 먼저 보이곤 했었는데
세월이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여
이제는 사랑이 보이고 삶이 먼저 보이더군.
허물, 그게 무 어때서. 상처, 그건 또 뭐라고.
세수하다가 젖은 머리카락 같은 거지.
설거지하다가 젖은 앞섶 같은 거지.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 제31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 일시 :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연합미사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우리성당 스타일' 강남스타일 패러디 혹은 각본당만의 독특한 스타일 표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라파엘 성당
- 카풀 : 당일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사무실 휴무)
-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및 모자도 무료증정합니다.

◆ 추수감사절연합 2부행사 '우리성당 스타일' 경연대회 출전선수 103명 교우 모이세요!

- 대상 : 주일학교학생과 전교우(본당 신부님·수녀님 참가)
- 연습 : 오늘주일(18일) 오후 1시 친교장(단 한번 연습)
- 준비물 : 흰티셔츠, 청바지, 선글래스
- 주관 : 주일학교(당일 학생들 카풀 제공)
-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청소년분과장 ☎(310)408-1443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제3회 본당 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 남·여 2팀 우승

지난 주일 열린 제3회 본당신부님배 각 단체별 족구대회에 총 8개팀이 참가하여 리그전을 벌인 결과, 남/여 각각 두팀이 공동우승했습니다.

- 남자우승 : 대건회(우승 트로피), 준우승 양업회
- 여자우승 : 주일학교교사회(우승트로피), 준우승 자모회
- 경기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글로리아 성가대 피정

- 일시 : 오늘 주일(18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말씀 : 오향숙 마우라 수녀님
- * 문의 : 김상규 니콜라오 성가대 단장 (310)508-1227

◆ 빈첸시오회 '대하 간장새우'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18일), 주일미사 전후
- 품목 : 신선한 왕새우를 간장에 숙성시킨 맛있는 '간장 새우장'입니다.
- 가격 : \$10(1파운드)
- * 문의 : 박진숙 엘리사벳 ☎(310)283-5879

◆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합니다.

- 일시 : 11월 18일(주일) 낮 12시30분~오후3시 강당
- 제공 : 헬스케어 파트너/수호천사보험(이정훈 안셀모)
-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대림환 만들기

- 신청 : 선착순 30명
- 만드는 날짜 : 12월1일(토) 오전 11시30분 강당
- 재료비 : \$20
- 문의 : 윤경옥 실비아 제대회장 ☎(909)557-7490

◆ 2012년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24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11월18일(주일)까지 제출(서류 사무실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습니다. 착오없이 바랍니다.

◆ 안나회 12월모임 임시변경

- 일시 : 12월2일(첫째주일) 낮 11시 미사후 회의실
- 문의 : 한루시아 ☎(310)738-438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8일(주일) : 요셉회(소고기무국 전신자들에 대접)
주일학교(5학년 떡볶이)
- 11월2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주일학교(4학년 햄버거)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자	김대우	김상규	김영경	김 옥	성전헌금	구자운	김광자	김대우	김 옥	김윤진	김정엽
	김윤진	김정엽	김준호	김현숙	김호순	노혜숙		김준호	김현숙	김호순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모은기	민기남	민순섬	박광자	박상준	박영룡		민순섬	박광자	박영룡	안재만	오세원	유영균
	배태임	송기철	안재만	오세원	유영균	윤분아		윤희동	이남현	이민상	이재정	임 순	정규숙
	윤희동	이남현	이민상	이일길	이재정	임 순		정동호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주용범	최외수
	전시웅	정규숙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주용범		황지영					
	최외수	황지영											
	합계 : \$3,790							합계 : \$2,680					
미사헌금 : \$3,158	2차헌금 : \$930						한남체인도네이션 : \$330	주보광고후원 : \$250(감사합니다.)					

- 평신도 주일을 맞아 -

오늘 연중 제33주일은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평신도주일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평신도 모두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다 함께 감사하며 스스로 경축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이 36년 전인 1968년의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도좌(使徒座)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편교회와 일치하는 가운데, 지역 교회 목자들이신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때부터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직(使徒職)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을 펼쳐도록 교회에 맡겨진 사도직(使徒的)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미 사도직에 불림을 받았으며, 우리 평신도들은 '주님의 포도원'인 각자 삶의 일터에서 사도직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단체사도직과 평협

"평협이 무엇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어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협은 한 마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친교 안에서 교회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는 다양하며, 교회가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로서 불렀기 때문에 단체 사도직은 교회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됩니다.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기도과정 프로그램

- 매일 30분씩 14주 기도과정, 매일 1시간씩 9개월 기도과정
- 마감 : 11월30일(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CLC)
- 문의 : 정도로테아 ☎(818)764-8950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gov 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 베이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9(금) 오후 7시 북해루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옥올리아 539-3377 11/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신순철 가브리엘 494-1391 11/13(화) 오후 7시30분 반미사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18(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1/17(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박명순 안나 968-7600 11/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합동 반모임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1/10(토)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1/10(토) 오후 7시
이정자 아그네스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6(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678-8222 11/20(화) 오후 7시 반미사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병록 요셉 938-6807 11/6(화) 오후 7시 반미사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귀란 아녜스 617-3568 11/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읊으셨던 시구라고 합니다. 고은 선생님의 ‘가을편지’라는 시인데요 노래로도 유명하지요. 요즈음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엔 정성 들인 손글씨에 우표 붙인 편지의 낭만이 어느 때 보다 어울립니다. 웬지 부치지 못하는 편지라도 써보고 싶어지는 가을입니다. 하느님도 가을 타시는 걸까요? 어느 때 보다 공들인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직접 만드신 자연을 통해 사시사철 저희에게 특별한 기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봄에는 따뜻한 햇살과 움트는 꽃망울로,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으로 말을 걸어 주십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맑은 하늘 편지지에 울긋불긋 단풍으로 멋 내고 가을바람과 낙엽으로 인생의 의미까지 성찰케 하는 뜻깊은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살이에 부대끼느라 하늘 한번 올려 보지 못하고, 제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느라 바람 소리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느님의 편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요.

하느님의 편지는 조용히 자신을 가다듬고 맑고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린 우리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편지가 많아 하느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 때문이라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느님의 가을 편지도 짧아진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도 서둘러 하느님의 편지에 답장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 넓으신 하느님이지만 보내기만 하고 대답 없는 편지는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을 모아,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나를 찾기만 하면 편지 쓸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하느님의 우체통은 틀림이 없어서 잊고 지냈던 마음의 소리, 마음에 묻혀 있던 사랑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속삭이기만 하면 착오 없이 전달될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가을 단풍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죽어서도 사랑할 거라는 조금은 씩스러운 표현을 담아 뜨거운 연애 편지를 보내는건 어떨까요. 가을이니까요.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뉴스총괄팀장

☞ 도발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웃은 왜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영원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며 미래로 떠넘기는 대답은 싫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뜻하는 인(人)에 사이를 뜻하는 간(間)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사람 사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된다는 진리가 그 사이 간(間)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이 인간'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본격적인 철학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함께 하는 존재'로 '더불어-인간'이 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함께 할 짝이 필요했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에만 존재해야 하는 '사이 존재'인 내가 이웃을 제외하고 나면, 그 사이가 없어져 나도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안에서만 나도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웃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 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 요즘 힘들어하는 저에게,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바가 이뤄진 경험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시나요?

제 어린 시절 사진 중에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새우깡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자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아버지께 던진다고 협박하는 사진입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모습이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끔은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꼭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그 방식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기에 그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조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를 졸라 얻고자 하는 그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있음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은 지금 내가 청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 주시고, 바람을 들어주시며,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 본당 보좌